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GRAS, 식품첨가물, 안전성, 미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GRAS, 식품첨가물, 안전성, 미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4. 2. 21.
CFS, FDA의 GRAS 제도 안전성 불신, 개정 요구

2014. 10. 20.
FDA, GRAS 제도 허술함 인정, 2년 내에 안전성 보강한 규정 발표 공표

2015. 6. 16.
FDA, 트랜스지방 GRAS 목록에서 제거

2016. 8.12.
미국 GRAS 식품첨가물 FDA 등록 절차 추가

핵심이슈
도출

“미국 GRAS 식품 첨가물 FDA 등록 절차 추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GRAS 식품첨가물 FDA 등록 절차 추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미국 식약청(이하 FDA)이 일반 식품 및 동물용 식품에 포함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GRAS(Generalized Recognized As Safe; 안전성 인정 물질 제도) 등록 절차 최종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기존 규정에서는 생산자가 GRAS 인증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 한 후 바로 식품에 해당 물질을 첨가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FDA에 안전성 인정 물질 등록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은 식품 시판 전에 FDA가 주관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승인 탄원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GRAS를 통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GRAS는 FDA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품, 의약 및 화장품 연방법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안전 규칙을 준수한 안전 평가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FDA에 제출되고 나면 FDA는 해당 식품첨가물에 의심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180일 안에 생산자에게 알려야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번 GRAS 규정 개정은 미국 비영리단체 식품안전성센터(이하 CFS)가 FDA의 공공 보건 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얻어낸 성과이다. CFS는 생산자의 GRAS 자체 검열 과정의 신뢰성을 지적하였고, 해당 규정이 시행된 1997년부터 꾸준히 조사한 결과 GRAS를 시행한 식품 성분 중 수소 첨가 고체 지방 (트랜스 지방)을 비롯하여 건강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다수 발견한 바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FDA의 GRAS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본적인 정보 뿐 만 아니라, 위험 식품첨가물 정의 해당 여부, 해당 식품첨가물 사용 방법, 사용 절차, 물리적/기술적 기대 효과, 의도한 효과 도출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최소 첨가량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보고서와, 과학적인 데이터, 정보,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수 확인서, 그리고 해당 첨가물이 포함된 샘플을 FDA에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내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GRAS 비 옹호 단체들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GRAS 검사 절차가 더 까다로워 졌을 지라도 수출업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의 GRAS 규정 변화는 미국 식약청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ederalregister.gov>)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